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도-효성 협력 펀드 지역경제 ‘순풍’ 기대감

### 투자 시점 대비 지난해 말 기준 고용 227% 성장 최대 비중 차지하는 성일하이텍, 코스닥 상장 눈 앞

전북도가 만든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의 최대 비중(2019년 20억원 투자)을 차지하는 ‘성일하이텍(주)’(대표이사 이강명)이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는 비수도권 지방기업 투자가 주 목적인 지역투자펀드로 지난 2016년 6월 전라북도가 효성그룹, SI투자파트너스(주)와 협력 출자에 조성한 200억원 규모의 펀드다.

또한, 도가 출자한 최초의 창업·벤처기업 지원 펀드이자, 현재까지 조성된 창업펀드 중에서도 최대 규모다.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는 총 18개사 184억5,000만원을 투자(도내 12개사 120억원, 도외 6개사 64억5,000만원)했는데, 도의 전략 특화 산업분야인 탄소, 농생명 등 창업·벤처기업에 집중 투자했다.

전북 소재 기업(본사)에 펀드 조성금액의 60%인 120억원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로 당초 결성 조건인 투자기간

(4년)보다 1년 빠르게 주목적 대상 투자금 120억원을 소진했다.

도내 투자기업은 투자 시점 대비 2021년 말 기준 매출액은 268%, 고용은 227% 성장하는 등의 괄목할 성과를 보여주고 있어 탄소성장펀드 투자기업이 지역경제에 기여하고 있다.

투자한 지 만 3년도 채 되지 않았으나 펀드의 핵심기업으로 성장한 성일하이텍(주)의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가 매우 컸다. 2차 전기 산업의 성장성을 감안할 때 향후 성장에 더 기대되는 기업이다.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 포트폴리오의 최대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이자, 본사가 전북에 소재하는 ‘성일하이텍(주)’(대표이사 이강명)이 코스닥 상장을 눈앞에 두고 있다.

페배터리 재활용 선도기업인 ‘성일하이텍(주)’는 16일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했다.

지난 2000년 설립된 ‘성일하이텍(주)’는 귀금속 재활용 사업을 영위해

오다 2011년 습식제련 공장을 가동하면서 본격적으로 페배터리 재활용 분야의 국내 선두기업으로 거듭났다. 주요 고객사인 국내 배터리 셀 3사(KLG 에너지솔루션, 삼성SDI, SK온)에서 페배터리를 납품받는 등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해외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 배터리 셀·소재 업체와 견고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매출처를 다변화에 지속 성장하고 있다. 페배터리 재활용 시장 규모가 연평균 33%씩 성장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앞으로의 전망 또한 밝으며, 도내 2차전기 소재기업들과의 동반 상승효과 또한 기대된다.

한편 반도체 소재 제조 기업 (주)제이아이테크 또한 코스닥 상장 예비심사를 신청해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의 성과가 더욱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효성-SI 탄소성장펀드의 성공이 도내 자체 투자 생태계 활성화의 마중물이 되기 바란다”며, “성일하이텍(주)과 같은 기업의 자체적인 혁신에 의한 매출 성장과 가계 소득에 이바지할 수 있는 고용 창출로 연결되는 지역경제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 도심 가득한 먹구름



전국적으로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 27일 전주시 차명자산에서 비리본 하늘이 먹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

## 김승환 교육감 12년 마무리... 오늘 이임식

### 교육청 직원·도민 누구나 참석 가능 열린 무대로 꾸며져 “아름다운 이별 될 수 있도록 손잡아주시는 분들이 함께 해주시길” 마지막 확대간부회의서 “소명감·사명감 잊지 않길 바라”

지난 12년 간 전북교육을 이끌었던 김승환 교육감이 28일 이임식을 갖고 전북교육감직을 마무리한다.

이에 따라 28일 오후 6시 도교육청 앞마당에서 열리는 이임식에는 교육청 직원뿐만 아니라 도민 누구나 참석해 함께 축하할 수 있는 열린 무대로 꾸며진다.

이임식은 도교육청 일반직공무원 등 아리 ‘청보리’의 여는 공연을 시작으로 12년 활동을 담은 동영상 상영, 교육가족들의 보내는 마음을 담은 송별사, 교육감 이임사, 기념 촬영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교사 동료들이 ‘동요샘’이 만든 창작곡 ‘그대 삶의 여백이 사랑으로 채워지기를’을 부르며 김 교육감의 새로운 시작을 축복할 예정이다.

김승환 교육감은 “전북교육감으로서 지난 12년간 교사와 아이들을 지키는 파수꾼 돌보미라 생각하고 오로지 교육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면서 “아름다운 이별이 될 수 있도록 손



잡아주셨던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교육감은 27일 마지막 확대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간부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자리에서 김 교육감은 “공직은 개인적인 것이 동시에 공적인 것이라는 것, 지역적인 것이 동시에 국가적인 것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라”면서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전북교육이 있고, 내가 있기에 대한민국 교육이 있는 것이다”는 소명감·사명감을 한시도 잊지 않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한 “지난 12년 전북교육감 자리에 있으면서 한 번도 지루하지 않았다. 기쁘게 나는 왜 이렇게 사뭇배이 많은 까, ‘어쩌다 내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일을 하게 됐을까’를 생각한다”면서 “한분 한분 존재 자체가 빛나고 앞으로도 공직자로서의 삶이 탄탄해 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 도, 과학기술 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본격

### 식품연구원과 협약 체결... 도내 7개 마을 대상 추진

전북도와 한국식품연구원은 최근 세종시청에서 과기부와 행안부가 주관하는 2022년 과학기술활용 주민공감 지역문제 해결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에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최훈 실장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 정책실 고서곤 실장, 과제에 선정된 10개 자치단체 해당 사업부서 담당 국장이 참여했다.

전북도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서 지역 농산물의 과학적 검증을 통한 맞춤형 건강힐링식단을 개발하고 이를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영양 불균형 문제 등을 해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내 6개 시군 7개 마을이 스스로 해결단을 조직해 각 지역의 건강·치유 농산물을 선정하고 향후 제품화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했다.

마을별 사업을 살펴보면 △건강힐링식단 개발은 인삼 강서마을, 진안 하가마마을, △제품 사업화로는 김제 의갓마을, 증촌마을 고향 화산마을,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은 익산 용머리마을, 정읍 원정마을이다.

전북도는 총 6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건강힐링식단 개발, 밀키트 사업화,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등 로컬푸드 등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게 됐다.

이번 공모사업의 주관기관(한국식품연구원) 연구책임자로 선정된 장대자 책임연구원은 “도의 다양한 식재료를 발굴하고 영양분석, 임상연구 등 과학기술을 접목해 타 지역과 차별화는 물론 고령 주민의 건강 맞춤형 식단 제공을 위한 실증 연구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이번 최종 과제 선정으로 지역 농산물에 대한 과학적 분석이 가능해졌다”며, “향후 건강식단개발 및 커뮤니티 레스토랑 운영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경수 기자

손 씻기·마스크 착용... 개인방역 수칙 준수해주세요.

## 전주천을 살립니다

**자연과 인간이 어우러진 생태이전 - 전주천**

전주의 남동쪽에서 북서쪽으로 흐르는 전주천은 유역면적 31.53㎢, 길이 30km의 지방 1급 하천이다.

전주에서 남동쪽으로 26km 정도 떨어진 임실군 관촌면 솔치에서 발원하여 시의 중심지를 관통 하여 흐르는 전주천은 서신동 추천에서 삼천(三川)과 합류하는 만경강 제1지류이다

전주매일 캠페인